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인천에는 설렘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공항인 인천공항,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1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의 강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꿈의 무대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로  
 인천이 새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가이드북



10.18~10.24

다시 '인천'이다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INCHEON 2014 ASIAN PARA GAMES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외침으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 입장권 이렇게 예매하세요!

개·폐회식 인터넷 옥션  티켓 판매 (ticket.auction.co.kr)  
나머지 경기는 **무료입장**



### 입장권 가격

개회식 25만원, 폐회식 10만원  
경로·장애인·유공자 50%, 청소년(만7세~15세) 50%  
단체(30인이상) 30%, 아동(만6세이하) 무료로 특별 할인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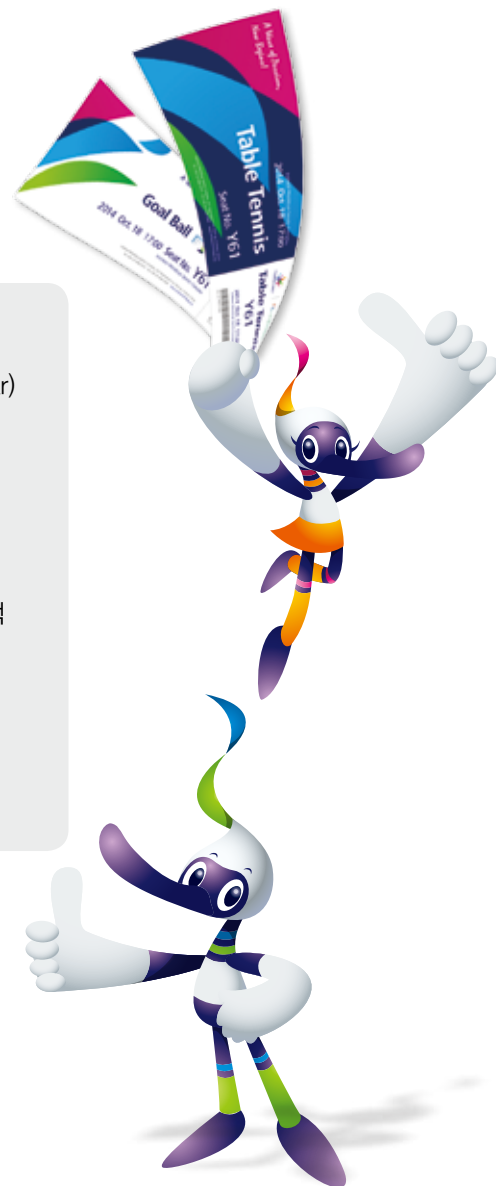


### 입장권 구매객에게 드리는 혜택

- 공식 후원사인 탐앤탐스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1잔
- 입장권을 넣을 수 있는 목걸이형 카드지갑
- 휴대용 방석 제공

www.incheon2014apg.org

문의 : 458-5383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4



22



52

### 인천십사년 십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50

### contents

- 04 사진으로 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 민트TV
- 22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 28 특이한 경기
- 32 주목할 선수
- 34 개·폐회식
- 38 프레젠테이션, 선수촌, 미디어촌
- 40 장애인관련 인천의 큰 인물 3인
- 44 문화행사
- 46 Culture Info
- 48 인천축제
- 52 인천의 가을

### 표지이야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이달 18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고, 도전과 열정, 화합의 무대로 아시아인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인천에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불굴의 의지로 이뤄낸 장애인선수들의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10월 10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우승봉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정정호·홍승훈·유창호(자유사진가) 행정 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 우리 모두, 인천에서 빛나다

“아시아는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우리 모두 가족이고 친구였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 된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아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시아의 미래를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찾으려 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문화공연 2부의 시작을 알린 배우 장동건의 내레이션이다. 아시아 젊은이들은 지난 15일 동안 인천의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숨을 들이마시며 힘과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함께 맘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 가족이며 친구임을 확인했다. 45억 아시아인은 아시아 시대의 위대함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그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음을 인천에서 보았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민영, 정정호(자유사진가)





Diversity Shines Here







Diversity Shines Here







*Diversity Shines Here*

아시아올림픽 깃발 아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선수·임원 1만3천여명은 모두 하나가 되었다. 운동장에서는 선수들이 열전을 벌였고 경기장 안팎에서는 관람객과 시민들의 열정이 뜨거웠다. 특히 이주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은 친정 식구 맞이하듯 가슴 벅차하며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모처럼 고국에서 온 선수들을 향한 응원은 모국 선수들에게 커다란 에너지원이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 스포츠 균형발전에 시발점이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8년 동안 '인천 비전(Vision) 2014'을 진행해 이번 대회가 스포츠 강국 위주의 잔치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Diversity Shines Here*







*Diversity Shines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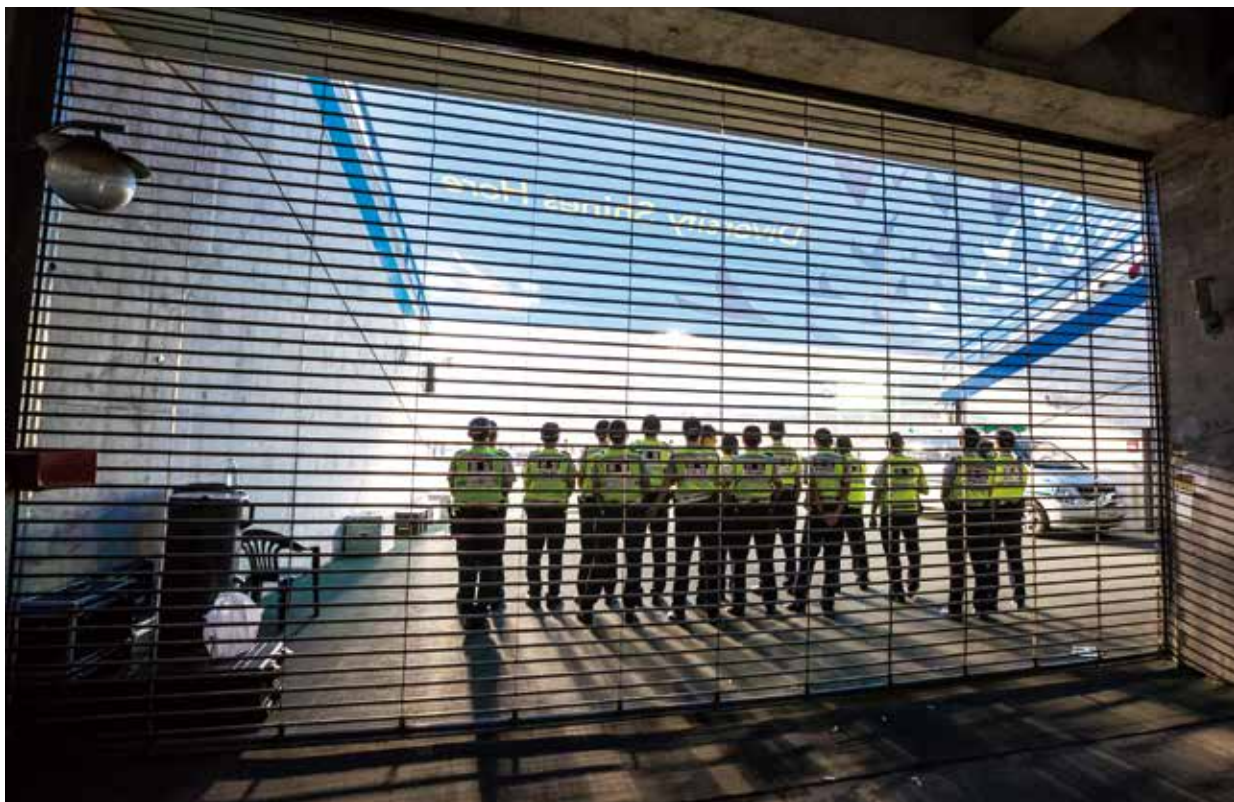
*Diversity Shines Here*







*Diversity Shines Here*



2014AG의 성화는 꺼지더라도 인천은 아시아의 뜨거운 불로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는 인천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  
고 노래할 것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넘어 아시아는 물  
론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대들이 있어 인천도 행복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이여, 4년 후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가십시오.





## “우리도 함께 뛰었습니다” 민트TV ‘오픈 스튜디오’ 운영

글 · 사진 김민영(자유기고가)

“안녕하세요~.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인천아시아 소셜TV 진행을 맡은 김성희, 흥연주입니다.”  
민트(MINT)TV가 스튜디오를 통째로 들고 거리로 나섰다. 민트TV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장에서 열전의 분위기를 전하고 불협에 일조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오픈스튜디오의 모습, 공중파와 달리 약간은 어설픈 진행 등이 오히려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다.



두툼한 방음문과 투명창도 없이 완전히 뽕 뚫린 스튜디오는 일종의 ‘보이는 라디오’이다.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그날 있었던 경기와 기대되는 저녁 경기, 그리고 다음날 눈여겨 볼 경기 등 아시아경기대회의 다양한 소식을 프리토크로 재미있게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시민VJ로 출연해 활동 사항과 현장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방송 중간에 음료수 빨리마시기, 2단 줄넘기, 제기차기 등 ‘나도 국가대표(미니올림픽)’ 게임 이벤트 실시해 가는 발걸음을 붙잡기도 했다.  
민트TV는 개막일인 9월 19일과 20일에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에서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이후 문학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은 민트TV(<http://tv.incheon.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감동과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성화가 활활 타오른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인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 42개국 6천여명(선수 4천5백명, 임원 1천5백명)이 참가해 23개 종목(패럴림픽 종목 19개 + 비패럴림픽 종목 4개)에서 열전을 벌인다.

장애인경기대회는 스포츠 경기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정신과 재활, 그리고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을 통해 복지국가의 사회적 기반과 사회적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한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여정이며, 용기 있는 모험이다. 무엇보다 색다른 감동과 배려 그리고 화합을 보여 줄 것이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모태는 극동·남태평양신체장애인스포츠대회(FESPIC)이다. 1회 FESPIC은 1975년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되었다. 1982년 이래로 대회는 하계장애인올림픽 개최년도 중간 해에 열리고 있다. FESPIC 대회 참가국과 참가선수의 숫자는 몇 년 새 급속히 증가했으며 다수 종목에서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의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한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 종목**

**패럴림픽 종목(19) :**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5인제 축구(시각), 7인제 축구(뇌성), 골프, 유도, 역도,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배구, 휠체어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 럭비, 휠체어 테니스

**비 패럴림픽 종목(4) :** 배드민턴, 론볼, 볼링, 휠체어 댄스 스포츠

★ 순서는 가나다, 번호는 경기장 표시임

- 가 골볼<sup>19</sup>
- 나 휠체어 농구<sup>6</sup>
- 다 휠체어 댄스스포츠<sup>1</sup>
- 라 휠체어 럭비<sup>15</sup>, 론볼<sup>20</sup>
- 마 마라톤<sup>2</sup>
- 바 배드민턴<sup>4</sup>, 좌식배구<sup>7</sup>, 보치아<sup>16</sup>, 볼링<sup>23</sup>
- 사 사이클<sup>18</sup>, 수영<sup>12</sup>, 사격<sup>11</sup>
- 아 양궁<sup>3</sup>, 육상<sup>2</sup>, 유도<sup>10</sup>, 요트<sup>9</sup>, 역도<sup>21</sup>
- 자 조정<sup>22</sup>
- 차 축구(5인제 축구<sup>14</sup>, 7인제 축구<sup>17</sup>)
- 타 휠체어테니스<sup>8</sup>, 탁구<sup>13</sup>
- 파 휠체어펜싱<sup>24</sup>



No	경기장명	종목	전화번호
1	강화고인돌체육관	휠체어댄스스포츠	070-4735-1025~7
2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육상, 마라톤	070-4735-3425
3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양궁	070-4735-1107
4	계양체육관	배드민턴	070-4735-1211
5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트랙)	070-4735-3104
6	상산월드체육관	휠체어농구	070-4735-1909
7	송림체육관	좌식배구	070-4735-2603
8	열우물테니스경기장	휠체어테니스	070-4735-2809
9	왕산요트경기장	요트	070-4735-3020
10	도원체육관	유도	070-4735-1618~9
11	육원국제사격장	사격	070-4735-2905
12	문학박태환수영장	수영	070-4735-1804
13	송도글로벌캠퍼스체육관	탁구	070-4735-2405
14	선학하기경기장	5인제축구	070-4735-2205
15	선학체육관	휠체어럭비	070-4735-2104
16	남동체육관	보치아	070-4735-1430~1
17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7인제축구	070-4735-1352~6
18	송도도로사이클	사이클	070-4735-2501
19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골볼	070-4735-2009
20	인천대공원론볼경기장	론볼	070-4735-3207
21	달빛축제정원역도경기장	역도	070-4735-1515
22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조정	070-4735-3310
23	안양호계체육관	볼링	070-4735-2712
24	송도글로벌대학공연장	휠체어펜싱	070-4735-2308

※ 위 경기장 전화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만 운영합니다.



### ① 휠체어댄스스포츠 | 강화고인돌체육관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관람석 4천14석, 주차장 159대

교통 : 버스\_A신당리 입구(43-383), B진고개(5연대입구)(43-799) 2, 20, 21, 22, 23-1, 24, 25, 26, 27, 30, 32, 33, 34, 35번, 대산리, C하도리입구(43-826), D송해교회(43-384) 2, 20, 21, 22, 23, 23-1, 24, 25, 26, 27, 30, 32, 33, 34, 35번, E신당리입구(43-799), F진고개(제5연대입구)(43-794) 1, 2, 20, 21, 22, 23, 23-1, 24, 25, 26, 27, 30, 32, 33, 34, 35번

선수촌과의 거리 : 62.5km(80분)

### ② 육상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위치 :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806, 관람석 6만1천914석, 주차장 1천901대

교통 : 공항철도\_검암역 하차 후 버스\_1, 7, 13, 17, 17-1, 42-1, 70, 77, 700, 700-1, 903번

선수촌과의 거리 : 16km(45분)

### ③ 양궁 | 계양아시아드양궁경기장

위치 :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서운동 111), 관람석 1천181석, 주차장 159대

교통 : 인천지하철\_작전역 하차 후 시내버스(2-1) 환승, 버스\_A계양경기장(41-568)(41-567) 7700번, B대동아파트(41-173)582번

선수촌과의 거리 : 12km(35분)

### ④ 배드민턴 | 계양체육관

위치 :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서운동 111), 관람석 4천304석, 주차장 168대

교통 : 인천지하철\_작전역 하차후 시내버스(2-1) 환승, 버스\_A계양경기장(41-568, 41-567) 7700번, B대동아파트(41-173)582번

선수촌과의 거리 : 12km(35분)

### ⑤ 사이클 | 인천국제벨로드롬

위치 :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관람석 1천508석, 주차장 99대

교통 : 인천지하철\_1호선 계산역, 버스\_A계양경기장(41-568)(41-567)7700, B대동아파트(41-173)582번

선수촌과의 거리 : 13km(35분)

### ⑥ 휠체어농구 | 삼산월드체육관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관람석 7천220석, 주차장 547대

교통 :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하차 3번 출구, A삼산월드체육관(40-543) 96-1, 1200, 9300, 9800번, B삼산월드체육관(40-571) 79, 760-1번

선수촌과의 거리 : 8.5km(25분)

### ⑦ 좌식배구 | 송림체육관

위치 : 인천시 동구 염전로 30, 관람석 5천2석, 주차장 236대

교통 : 지하철 1호선\_동인천역 하차 후 버스\_3-2, 6-1, 15, 16, 22, 24, 28, 29, 40, 112, 306, 307번 환승, 송림체육관(36-130) 16, 40, 3-2번

선수촌과의 거리 : 9km(25분)

### ⑧ 휠체어테니스 | 열우물테니스경기장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관람석 3천510석, 주차장 296대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동암역 하차 후 버스\_7-1, 10, 42, 77번, 환승버스\_열우물(40-063) 3-2, 7-1, 42, 77번

선수촌과의 거리 : 6km(20분)

### ⑨ 오토 | 왕산오토경기장

위치 :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143-1번지, 주차장 1천대

교통 : 공항철도\_인천국제공항역 하차, 버스\_왕산해수욕장(35-020) 202, 302, 306번, 셔틀버스\_계산역, 인천터미널역(1일 4회 운영)

선수촌과의 거리 : 44km(50분)

### ⑩ 유도 | 도원체육관

위치 : 인천시 중구 셋골로 41번길 10, 관람석 2천667석,

주차장 135대

교통 : 지하철 1호선\_도원역 하차, 버스\_도원역 정차 28, 21, 15, 10, 112번

선수촌과의 거리 : 9.5km(25분)

### ⑪ 사격 | 옥련국제사격장

위치 : 인천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관람석 1천337석, 주차장 103대

교통 : 수인선\_송도역 하차, 간선버스\_6, 8, 105번(좌석버스), 마을버스\_3-1번(좌석버스)

선수촌과의 거리 : 7km(20분)

### ⑫ 수영 | 문학박태환수영장

위치 :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618, 관람석 3천6석, 주차장 53대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 버스\_A문학경기장(38-310) 11, 27, 63, 754, 780-2, 522, 523, 303번, B문학경기장(38-311) 27, 63, 754, 780-2, 908, 522, 523번, C문학경기장(37-157, 37-144) 4, 5, 13, 111-2, 515번

선수촌과의 거리 : 1.5km(5분)

### ⑬ 탁구 | 송도글로벌캠퍼스체육관

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관람석 1천643석, 주차장 421대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캠퍼스타운역 3번 출구,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6-2번 환승, 버스\_송도글로벌캠퍼스(39-791) 91번

선수촌과의 거리 : 10km(25분)

### ⑭ 5인제축구 | 선학하키경기장

위치 :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관람석 5천101석, 주차장 558대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선학역 하차 버스\_A선학동(38-308) 6, 27, 63, 754, 780-2, 43, 522, 523, 303번, B선학동 입구(38-309) 6-1, 27, 63, 754, 780-2, 43, 522, 523, 303번

선수촌과의 거리 : 1.5km(5분)

### ⑮ 휠체어 럭비 | 선학체육관

위치 :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관람석 2천033석, 주차장 558대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선학역 하차 A윤성아파트(38-307) 780-2, 43, 522번, B선학역(38-306) 6, 27, 63, 780-2, 754, 522번

선수촌과의 거리 : 1.5km(5분)

### ⑯ 보치아 | 남동체육관

위치 :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관람석 8천571석, 주차 329석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예술회관역 하차 후 21, 754번 환승, 수인선\_소래포구역 하차 후 21, 754번 환승, 버스\_(A수산동 B수산동 입구) 16-1, 21, 103-1, 754, 909번

선수촌과의 거리 : 1.5km(5분)

### ⑰ 7인제 축구 |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위치 :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40, 관람석 4천968석, 주차장 234대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예술회관역 하차 후 21, 754번 환승, 수인선\_소래포구역 하차 후 21, 754번 환승, 버스\_수산동입구(39-682) 16-1번, B남동체육관(39-214) 21, 33, 754, 536번, C남동체육관(39-215) 21, 721, 752, 536, 103번

선수촌과의 거리 : 1.5km(5분)

### ⑱ 사이클 | 송도도로사이클

위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

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_인천대입구역 하차 2,3번 출구, 인천대입구역 8, 9, 780-2, 3001, 908, 909, 780, 780-1

선수촌과의 거리 : 10km(25분)

### ⑲ 골볼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치 : 연수구 경원대로 526(선학동), 관람석 3천11석, 주차장 198대

교통 : 인천지하철1호선 선학역 하차(1번출구), 승기천 3-2, 4, 5, 21-1, 34, 35, 38, 103-1, 537, 304번

선수촌과의 거리 : 1.5km

### ⑳ 론볼 | 인천대공원론볼경기장

위치 : 남동구 무네미로 236번길(장수동), 관람석 132석, 주차장 560대

교통 : 경인전철 1호선 송내역 하차 8, 14-1, 16-1, 30, 103, 103-1, 909번 환승, 인천대공원 8, 11, 14-1, 16-1, 30, 103, 103-1, 909번

선수촌과의 거리 : 5.5km(15분)

### ㉑ 역도 | 달빛축제정원역도경기장

위치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340, 관람석 300석, 주차장 217대

교통 : 인천지하철1호선\_국제업무지구역 하차, 버스\_송도2동주민센터(38-492) 9, 92번

선수촌과의 거리 : 11km(25분)

### ㉒ 조정 |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관람석 468석, 주차장 656대

교통 : 버스\_망월초교입구(28-055, 28-055) 1-4, 2000-2번

선수촌과의 거리 : 65km(66분)

### ㉓ 볼링 | 안양호계체육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0번지 52, 관람석 105석, 주차장 111대

교통 : 버스\_A호계체육관(호계도서관) 917, 6, 6-3, 1-2번, 버스\_B경수산업도로 1-2, 300, 900, 8, 22, 301, 1650번

선수촌과의 거리 : 27.5km(40분)

### ㉔ 휠체어펜싱 | 송도글로벌대학공연장

위치 : 인천 연수구 송도 문화로 119, 관람석 389석, 주차장 421대

교통 : 인천지하철1호선\_캠퍼스타운역 3번 출구 91번 환승, 테크노파크역 2번 출구 6-2번 환승, 송도글로벌캠퍼스 91번 순환

선수촌과의 거리 : 10km(25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경기일정

결승전이 포함되지 않은 경기  
결승전이 포함 된 세션 경기

경기장		종목		10월 15일 수	10월 16일 목	10월 17일 금	10월 18일 토	10월 19일 일	10월 20일 월	10월 21일 화	10월 22일 수	10월 23일 목	10월 24일 금
				-3	-2	-1	0	1	2	3	4	5	6
계양아시아드양궁장	GYA	양궁	AR						08:30-16:00	08:30-17:30	08:30-15:30	09:00-17:30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IMS	육상	AT					10:00-13:00	10:00-13:00	10:00-13:00	10:00-13:00	10:00-13:00	10:00-14:00
계양체육관	GYG	배드민턴	BA					09:00-21:00	09:00-21:00	09:00-21:00	09:00-21:00	09:00-21:00	
남동체육관	NDG	보치아	BO					09:00-18:45	09:00-11:00	09:00-12:30	09:00-12:50	09:00-11:50	09:30-12:30
인천국제벨로드롬	IIV	사이클	CY					09:30-14:00	10:00-13:00				
송도도로코스	SRC							14:00-16:00					
선학하키경기장	SHS	5인제축구	FB					13:00-16:30	10:00-16:30	10:00-16:30	10:00-16:30	11:00-17:20	
남동아시아드력비경기장	NDR	7인제축구	FT					11:00-12:15	11:00-12:15	11:00-12:15		11:00-12:1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SII	골볼	GB					10:00-12:15	10:00-12:15	10:00-12:15	10:00-12:15	10:00-12:15	
도원체육관	DWG	유도	JU					10:00-12:00	10:00-12:00	10:00-12:00	10:00-12:00	10:00-12:00	
인천대공원론볼경기장	IGL	론볼	LB					09:30-11:30	09:30-11:30	09:30-11:30	09:30-11:30		



경기장		종목		10월 15일 수	10월 16일 목	10월 17일 금	10월 18일 토	10월 19일 일	10월 20일 월	10월 21일 화	10월 22일 수	10월 23일 목	10월 24일 금
				-3	-2	-1	0	1	2	3	4	5	6
달빛축제정원 역도경기장	MLP	역도	PO					08:15-15:45	08:15-19:00	08:15-18:50	08:15-19:20	08:15-18:50	08:15-11:20
하남미사리조정경기장	HMR	조정	RO						13:30-14:45	13:30-15:30			
왕산오토경기장	WSM	요트	SA					10:00-17:00	10:00-17:00	10:00-17:00	10:00-18:00		
옥련국제사격장	OYS	사격	SH					09:30-17:45	09:30-17:30	09:30-15:30	09:00-17:30	09:30-15:45	
문학박태환수영장	MHA	수영	SW					10:00-TBD	10:00-TBD	10:00-TBD	10:00-TBD	10:00-TBD	
안양호계체육관	AHG	볼링	TB					09:00-18:00	10:00-18:00	10:00-17:00			
송도글로벌대학체육관	SGG	탁구	TT					10:00-13:00	10:00-13:00	10:00-13:00	10:00-11:30	10:00-13:00	10:00-11:30
송림체육관	SNG	배구	VS					09:00-19:00	09:00-19:00	09:00-19:00	09:00-21:00	09:00-20:00	
삼산월드체육관	SSG	휠체어 농구	WB		10:00-18:00	10:00-18:00	10:00-14:00	10:00-18:00	10:00-20:00	10:00-18:00	10:00-18:00	10:00-18:00	10:00-14:00
강화고인돌체육관	GDG	휠체어 댄스스포츠	WD						14:00-19:40	14:00-19:40			
송도글로벌대학공연장	SGC	휠체어펜싱	WF					09:00-19:30	09:00-19:30	09:00-19:10	09:00-19:10		
선학체육관	SHG	휠체어력비	WR					10:00-14:00	10:00-14:00	10:00-14:00	10:00-16:00		
열우물테니스경기장	YMT	휠체어테니스	WT				10:00-14:00	10:00-20:00	10:00-20:00	10:00-20:00	10:00-20:00	11:00-16:00	



## 다른 대회선 볼 수 없다 론볼, 골볼, 보치아...

이번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23개의 공식종목이 열린다. 론볼, 골볼, 보치아 등은 비장애인들의 경기에선 볼 수 없는 볼거리다. 이외에도 5인제 축구, 7인제 축구, 휠체어댄스스포츠 등도 장애인들에게 맞도록 경기내용을 조정,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준다.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능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보여준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골볼(Goal ball)

소리나는 볼을 상대팀 골대에 넣는 경기



골볼은 1946년 실명한 퇴역 군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고안된 장애인용 스포츠로,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다. 전맹(완전 시력장애)과 약시의 구분없이 통합 등급경기로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선수들은 눈가리개를 착용하기 때문에 경기장의 모든 표시는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도록 돌출되어 있다. 선수들은 촉각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경기는 두 팀이 각각 세 명의 선수로 진행하며 팀 당 최대 3명씩 교체 선수를 둘 수 있다. 센터라인에 의해 18m×9m 크기의 코트가 두 개로 나뉘지고 골대는 9m 코트의 골 라인에 설치된다. 공은 고무 재질로만 들어지고 공간에 방울이 들어있어 굴러가는 방향과 속도만 짐작할 수 있다. 선수들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기에 아이패치(눈가리개)와 아이셰이드(고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모든 규칙은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이 제정한 규정을 따른다.



### 론볼(Lawn Bowls)

표적구에 가깝게 던질수록 높은 점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다. 론볼이라는 명칭은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야외의 정사각형 잔디구장에서 흰색의 둥근 공(표적구, 잭)을 놓고 4개의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평소에는 우의를 다지며 즐기는 놀이지만 경기시에는 전략 간파를 위해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신사적인 경기다.

장애인경기로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60년 영국의 스토크맨드빌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시범경기를 열었고,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됐다.



## 휠체어댄스스포츠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이 펼치는 화려한 춤의 무대



휠체어댄스스포츠는 라틴, 스탠다드 등 2개 종목으로 나뉘며 장애인-비장애인 콤비, 장애인-장애인 듀오 경기로 진행된다. 장애등급에 따라 8개 세부종목으로 나뉜다. 장애인스포츠 중 유일하게 비장애인이 선수가 되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콤비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하기에 파트너 간 조화가 중요하다. 듀오종목은 두 명의 장애인 선수가 파트너를 이루어 경기에 참가하며, 두 선수의 등급 분류 포인트 합에 따라 클래스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 급성장한 종목이다.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세계선수권대회, 공인대회, 아시아교류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아시아지역 최정상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주목할 선수로는 2010 IPC세계선수권대회 4위를 기록한 이영호, 최문정 선수가 있다.



## 7인제 뇌성축구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인기 스포츠



축구는 필드에서 11명이 뛰지만 뇌성축구는 7명이 경기를 펼친다. 선수는 C5~C8등급 선수로 구성하며 C8선수 1명, C5~C6등급 선수 1명은 반드시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골키퍼를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선수교체는 3명까지 가능하다. 드로잉은 한손으로 굴릴 수 있으며 손으로 던지자마자 땅에 닿아야 한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는 모습이 달라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준다. 우리나라는 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때 도입하여 현재 뇌성마비 선수들에게는 대중화 된 경기종목이다. 이 종목의 세계 랭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이란,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 5인제 시각축구

눈 가리고 공을 드리블, 패스



시각장애인 축구는 전맹부와 약시부로 나뉘며, 장애인올림픽과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전맹부 경기만 열린다.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들은 아이패치와 안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한다. 특별히 고안된 공은 방울이 들어있어 선수들은 소리를 통해 움직임을 포착한다. 시력을 완전히 차단한 채 선수들이 공을 드리블하고 패스하기에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경이감을 준다. 규정은 풋살 규칙이 적용되나 파울을 누적 적용하는 규율이 있어 농구의 파울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는 2010년 광저우대회때부터 선수들을 파견했다.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한국, 중국, 이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종목 우수 선수로는 대한장애인축구협회 소속 김경호 선수가 있다.

## 보치아(Boccia)

정적인 운동이지만 전략 전술 필요한 멘탈스포츠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다. 보치아 경기는 테니스 경기처럼 많은 관중이 관람할 수 있으며, 선수가 공을 던질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 중증 뇌성마비인들과 장애의 원인이 대뇌에 있지 않거나 퇴행성 뇌질환으로 사지 모두에 심한 이동 장애를 보이는 휠체어 사용 선수들이 대상이다. 던져놓은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잡거나 던질 수 없는 경우 흡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를 할 수도 있다.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스포츠로 정적인 운동이지만 다양한 전략전술의 멘탈스포츠다. 이 종목은 장애인 및 정신지체인 등과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동계 스포츠나 놀이프로그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올림픽의 효자종목으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7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주목할 선수로는 베이징올림픽과 런던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정호원, 2010, 2011년 세계보치아월드컵대회 단체1위를 차지한 손정민 선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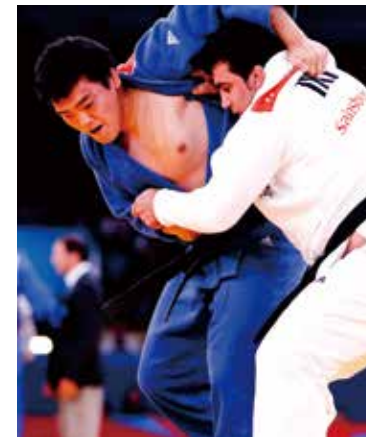




## 그들의 도전에 감동이 몰려온다

장애를 이기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장애인 선수들. 비장애인들도 살면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은데 장애가 있는 그들에게 도전은 오랫동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웅'들이라 불릴 만하다. 이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빛내줄 유망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훈련하며 땀과 눈물을 쏟았다. 이들이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희망은 책 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이다.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 차별을 들어올리는 헤라클레스 전근배

런던패럴림픽 동메달 주인공인 전근배(38, 경기도장애인체육회)선수는 이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기대주다. 비장애인 역도 선수 출신인 그는 한국체육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하반신 부분마비로 지체장애 3급 장애를 입었다. 그는 서른에 장애인 역도에 입문했다. 장애인역도는 비장애인 역도와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 척추장애 중목이기 때문에 누워서 역기를 들어야 하는 만큼 상체의 일부분만 사용한다. 기본기를 다지는데 2~3년이 걸렸다. 그는 2013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역도 파워리프팅 아시아 오픈 선수권대회에서도 232kg을 들며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도 역도 +107kg급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 보치아 찰떡콤비 정호원, 김한수

“올림픽 7연패의 힘!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눈여겨 봐주세요.” ‘코트의 신사’정호원(28, 속초장애인체육대회)과 ‘꽃미남 노력파’ 김한수(22, 경기도장애인보치아연맹)의 각오가 다부지다. 보치아 세계랭킹 1,2위인 두 선수는 BC3 2인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한편,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이다. 지난 2009년부터 BC3 2인조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정호원, 김한수는 지난 런던패럴림픽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현재 2인조 랭킹 4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금메달을 되찾아 자존심 회복은 물론 대한민국 보치아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다. 이번 대회에서도 보치아 금메달 사냥에 나섰다.

### 육상 시각장애 원반던지기 배유동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요. 노장의 힘! 한번 보실래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육상 원반던지기에 나서는 배유동(시각장애)의 나이는 지천명을 넘긴 선 한 살이다. 2010년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리스트인 그는 ‘노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운동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다. 전기기사로 일했던 그는 서른네살쯤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 4급 진단을 받았다. 그는 시각장애인 후배의 권유로 7년 전 육상을 접했다. 그의 기록은 점점 더 향상돼 올해 원반던지기 부문 아시아 랭킹 1위에 올라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이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꼭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다.

### ‘투혼필승’ 시각장애인 유도선수 최광근

최광근 선수는 비장애인 유도선수로 생활하던 고2때 훈련 중에 상대 선수와 부딪혀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더 이상 유도를 할 수 없다는 선고를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자신이 좋아하는 유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2011년에도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 종합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의 시각장애 유도선수가 됐고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최 선수는 이번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도 출전한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정상의 기량을 아시아인들에게 선보이겠다는 의지가 크다.

### 장애인 볼링의 기대주 김정훈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볼링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던 김정훈 선수는 이 대회에서 단식 금메달을 수상했고, 2010년 제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남자볼링 2인조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장애인 볼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파라곤 볼링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시각장애선수 개인전 TBP1 총 7개국 12명의 선수 중 평균 128점을 획득하고 정상에 올랐으며, 이어 탁도균 선수와 조를 이룬 2인조에서도 금메달을 따낸뒤 3인조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는 등 제1회 AP TBF 챔피언십 볼링대회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그는 우리나라 장애인 볼링의 기대주다.

### 테넨사이클 국가대표 김종규, 전대홍 선수의 아름다운 동행

테넨사이클은 2인용 자전거로써 앞좌석에는 비장애인 선수가 타고, 뒷좌석에는 시각장애인이 탄 채로 함께 나아가는 사이클이다. ‘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앞에서 경기를 이끌어 주고, 뒷좌석의 시각 장애인이 함께 협력하여 페달을 밟아 나가는 경기다. 두 선수의 실력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타면 혼자일 때보다 스피드가 훨씬 빠르게 나온다. 두 선수는 이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다.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 ‘불가능은 없다’ 도전과 열정의 축제 팡파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개회식과 폐회식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퍼펙트 대회를 자랑한다.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여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는 장애인들에게 전 세계인들은 이미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대한장애인체육회

### 개회식 ‘선수과 조력자’가 함께하는 화합의 무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은 ‘불가능이 우리를 이끈다(Impossible Drives Us)’라는 주제로 불가능을 극복한 아시아인들이 함께하며 도전하는 무대다.

개폐회식은 박칼린 총감독을 중심으로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과 조력자들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을 축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준비하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진다. 개회식은 문학경기장에서 18일 오후 5시 45분부터 열린다. 존재(Be), 불가능(Impossible), 창의성(Creativity), 축제(Celebration)라는 네가지 주제로 진행하며 인간의 불가능을 극복해 온 과정을 그라운드 위에서 펼친다.

역대 대회의 공연이 신체적 불가능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장애인 선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대회에선 장애인수는 물론 이들을 옆에서 응원하고 도와준 가족들, 과학자, 의료진 등 함께 한 사람들의 삶과 열정을 감동의 드라마로 펼쳐낸다.

특히 각각의 조력자들의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을 펼쳐 마치 박람회를 보는듯한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개회식 1부의 주제는 ‘인류, 존재하다(Be)’이다. 인간은 모두 다른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국가와 민족, 종교와 문화, 경제적인 조건 등 제 각기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다른 빛깔의 삶을 살아간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모여 만든 거대한 프리즘인 인류의 모습을 ‘오프닝 쇼’에서 보여준다. 축하공연에선 각각의 퍼포머들이 그라운드에 모여 다양한 형태의 동선을 만들어내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모습을 축하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2부 주제는 ‘불가능, 그 높은벽(Impossible)’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닦칠 수 있는 시련과 고난. 마치 끝을 찾을 수 없는 미로처럼 넘어서기 불가능한 높은 문턱을 경험하지만 생존을 위해 다시 일어나 이겨내고 살아남는다. 2부의 주제공연에선 인류가 겪은 여러 고난의 모습인 사고, 전쟁, 선천적인 장애를 불가능의 높은 벽으로 표현하고 관객들은 이 험난한 장애에 대해 잠시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3부는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열쇠다. 인간에게는 창의성이 있어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리한다. 불가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신체는 차가운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고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많은 것을 느낀다. 3부 공연에선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조력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발명한 기구들이 등장한다. 도구를 통해 되찾은 인간의 자유를 표현하며 창의성으로 발명된 새로운 인생을 표현한다. 발명품을 모티브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어 대회사, 환영사, 개최선언, 대회입장, 게양, 선수 심판 대표 선서 낭독에 이어 성화가 점화돼 개최식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

4부는 ‘인생은 축제(Celebration)’라는 콘셉트로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는 선수들의 모습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가능을 넘어선 인류는 이제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다. 인생을 스스로의 용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전하고 준비한 이들에게 축하의 박수와 마음을 보낸다. 더불어 화려한 불꽃놀이로 아시아인과 시민들에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선포한다.

*A Wave of Passion, Now Begins!*



### 17일 마니산 채화 후, 1박2일간 성화 봉송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또 다른 볼거리는 성화 봉송이다. 대회 개막 하루 전인 10월 17일 강화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를 한 후, 1박2일 일정으로 인천 전 지역(43개 구간, 108.15km)을 달린다. 성화봉송 행사에는 주주자 60명과 보조 및 호위주자 360명 등 420명의 봉송주자가 참가한다. 채화 후 강화군,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를 거쳐 당일 오후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성화 안치식과 전야제를 진행한다.

이튿날엔 남동구,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를 달려 문학경기장 개최식과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동시에 점화한다. 조직위는 성화 봉송 구간 1~2곳을 선정해 다문화 전통공연, 비보이, 코스프레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다.

### 폐회식 7일간의 감동을 다시 한번

7일간의 도전과 열정 현장은 10월 24일 오후 6시에 아쉬운 막을 내린다. 폐회식에서는 7일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이긴 감동의 현장을 모아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여준다. 하이라이트 영상 후에는 인간문화재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퍼포머들이 나와 식전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이어 K-Pop 가수들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하며 선수단과 전 출연진, 관객들이 화합하는 공연과 함께 불꽃놀이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폐회식을 끝으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마무리 되지만, 아시아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가슴과 머리에는 인천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게 아로새겨 질 것이다.





# 수준높은 대회시설

## 인천 품격을 높인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 임원진, 관계자, 기자들이 불편 없이 경기에 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마련했다. 프레스센터, 숙박호텔, 선수촌, 미디어촌 등은 실질적으로 대회를 이끄는 핵심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현대적이고 편리함을 갖추고 있어 인천의 이미지를 높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 프레스센터

지구촌 아시아인들에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소식을 보도하고 알리는 메인 프레스센터는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단계별로 다르다. 개막전인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대회가 시작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24시간 뉴스룸이 움직인다. 대회가 끝난 후인 25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후 마무리 된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메인 프레스센터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내에 만들어진다. 프레스센터에 참여하는 미디어 규모는 국내·외 기자 1천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메인 프레스센터 내에는 IBC센터(방송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메인 프레스센터에는 인포메이션 센터, 기사작성실, 사진기자 작업실, 기자회견장이 조성되어 기자들의 취재 및 기사송고를 위한 갖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장애인 선수촌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은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총 17개동, 1천613호(15개동 1천370호, 지원요원 숙소 2개동 243호)를 확보했고, 장애인 편의, 위락, 건강, 종교 시설 등이 들어서 선수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선수촌은 설계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를 인 증받았다. BF는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접근, 이용, 이동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계획, 설계, 시공 등의 기준을 준수한 시설물을 뜻한다.

선수촌에서는 대회기간 동안 ‘한의진료소’가 운영된다. 한방의 뜸과 침을 활용 해 아시아 각국의 대표선수, 임원, 취재기자, 운영요원 등 대회관계자들의 발길 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진료소에는 총 13개 진료과가 개설되어 6~7인 의 한의사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통역요원 등이 상주해 각국 선수단 및 취재진 의 건강을 돌본다.



프레스센터



구월아시아드선수촌



###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호텔

올해 7월말 오픈한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은 특급 호텔식 서비스를 아 파트먼트에 접목시킨 레지던스형 호 텔로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이자 국내 최고층 빌딩인 동북아트레이드 타워 지상 36층부터 64층에 위치하 고 있다.



### 오라카이송도파크 호텔

오라카이송도파크 호텔은 송도센트 럽공원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곳에 위치한 특2급 비즈니스 호텔이다. 300개의 객실을 갖추고, 남성 전용 사우나와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센 터가 마련돼 있다.



###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은 서해의 바다 와 인천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 치한 특1급 비즈니스 호텔로 173개 의 객실과 사우나,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베니키아프리미어 송도브릿지호텔

송도브릿지호텔은 총 241개의 객실 과 비즈니스센터, 미팅룸 등 다양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 에 적합하다. 인천대교와 서해의 낙 조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경치도 아 름답다.



### 숙박시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관계자 및 임원진들을 위 한 본부와 협력호텔 등 7개소 817개실을 확보했다. 오크우드프리미 어인천호텔은 패밀리호텔로 선정되어 APC회장을 비롯한 IPC, NPCs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 위원회 위원 및 임원 등 대회 VIP가 투숙한다. 미디어호텔(파라다이스호텔 인천, 하버파크호텔, 라마다송도호텔)에 는 국외 공식기자단, 대회호텔(베니키아프리미어 송도브릿지호텔, 오 라카이송도파크호텔, 쉐라톤호텔)에는 장애인올림픽 단체 회원 및 방문객 스폰서 등이 묵는다.

### 본부 및 협력호텔

호텔명	주 소	전화번호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032-726-2215
오라카이송도파크 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	032-210-7504
쉐라톤호텔 인천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032-835-1000
베니키아프리미어 송도브릿지 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컨벤시아대로 233	032-210-3000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제일광로 257(항동1가)	032-452-8260
하버파크 호텔	인천광역시 중구 제일광로 217(항동3가)	032-770-9703
라마다송도 호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 1동 812번지	032-832-2346



장애, 기록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하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인천에 뿌리를 두고 장애를 극복한 큰 인물 3인을 다시 조명해 본다. 장애를 겪으며 오히려 더 예술혼을 불살랐던 검여 유희강, 자신도 치명적인 장애를 앓으며 동료 환자들의 자립과 갱생에 온 몸을 바쳤던 시인 한하운, 그리고 점자를 만들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송암 박두성. 비록 이들은 이제 이 땅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아름다운 영혼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

유희강(柳熙綱, 1911~1976)

불굴의 예술 정신을 보여준 좌수(左手)의 서예가

유희강은 ‘추사 이후의 명필’이라는 평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검여체(劍如體)라고 부르는 독특한 서체를 완성했다. 뇌출혈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자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계속해 ‘좌수(左手)의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며 불굴의 예술정신을 보여준 서예가다.

유희강은 지금의 인천 서구 시천동 진주 유씨(晋州 柳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유럽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경학원 내에 설치한 명륜학원(明倫學院)에 입학해 1937년 졸업했다. 경성기독교청년회 외국어학교 중국어과에서 중국어를 수학한 후 1939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1년간 베이징 동방문화학회에 들어가 서예와 금석학을 연구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는 상하이 미술연구소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한구무한보(漢口武漢報)’, ‘남창일보(南昌日報)’ 등 언론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광복 후 귀국해 인천에서 대동서화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했으며 서울에 있던 중국어신문인 한성일보에서 잠시 편집일을 했다.



유희강

6·25 전쟁이 일어나자 1950년 10월 결성된 문충구국대 인천지부 선전국장, 1951년 문충 인천지부 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1953년 인천시립박물관장이었던 이경성의 주선으로 시립도서관 사서를 맡아 전쟁으로 흩어진 책들을 수습해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 무렵 도서관 뒷방에 제물포고등학교 미술교사였던 김학수가 서실을 마련해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선당(蟬堂)’이라는 현판을 붙이고 사람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곤 했다. 그는 1954년 이경성에 이어 제2대 인천시립박물관장에 취임하였다. 동시에 인천박문여자고등학교에서 서예교사를 맡기도 하였다. 인천시립박물관장에 재직하는 동안 주안 고인돌과 문학 고인돌을 발굴하였고 학익 고인돌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인천지역 역사 유적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유희강은 1953년 제2회 국전에 서양화와 서예를 출품하여 모두 입선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국전에서 연이어 입선하였고, 1956년과 1957년에는 문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후 1959년 국전 초대작가를 거쳐 모두 6회에 걸쳐 국전 심사위원을 지냈고 1959년에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1964년 인천의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인사동에 ‘검여서실(劍如書室)’을 마련해 글씨를 쓰는데 몰두했다. 그 결과 같은 해 제2회 개인전을 열 무렵에는 검여체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을 받았다.



1959년 문학산성 조사 당시



점차 완숙한 예술의 경지에 다가서던 중인 1968년 9월, 유희강은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신체를 못 쓰는 불운을 당하였다. 서예가에게 오른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행서를 연습하면서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해 예서로 옮겨갔고 1971년 6월 회갑기념전을 열어 그 결실을 보여줬다.

이후에도 서체를 계속 개발해 1975년 ‘검여유희강좌수전(檢如柳熙綱左手展)’을 개최하며 왼손 서예가로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알렸다.

검여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무척 좋아했다. 유희강의 대표작은 추사의 글을 써넣은 ‘남무아미타불’(1963년작)이다. 불탑을 쌓아 올리듯이 ‘남미아무타불’ 6자를 적고 김정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를 써 넣은 것이다. 유희강의 회화적 일면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1972년 20년 동안 독창적인 작품으로 서예계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공로가 인정되어 제21회 서울시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했다. 1976년 10월 18일 뇌출혈이 재발해 사망했다. 저서로는 ‘인천의 안내 - 고적·명승·천연기념물’이 있으며 작품집으로 ‘검여 유희강 서예집’을 남겼다.





한하운



한하운시초



1950년대 신명보육원

한하운(韓何雲, 1920~1975)

한센인들의 자활사업을 이끈 ‘보리피리’ 시인

한하운은 ‘천형(天刑)의 시인’으로 불린다. 부평에 성혜원을 설립해 한센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시인이다. 그는 1920년 3월 10일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에서 2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한태영이다. 한센병이 본격적으로 발병해 증상이 심해지자 과거의 자신을 지우기 위해 ‘태영(泰永)’을 버리고 ‘하운(何雲)’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여섯 살 때 함흥으로 이사를 했다. 그의 교육을 위해 가족 전체가 쌍봉리를 떠나 새로운 터전에 둥지를 틀었다. 1926년 함흥 제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32년 이리농림학교에 들어가 수의축산과를 전공했다. 5학년이던 1936년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한센병 확진을 받았다. 이때는 이미 문학가의 꿈을 품고 시와 소설을 습작해 ‘조광’이나 ‘삼천리’ 등의 잡지에 투고를 하던 때였다.

1937년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도쿄로 건너가 세

이케이고에 입학하였고 1941년 다시 중국으로 이동, 북경대학교 농학원에 합격해 축목과를 전공한 후 1943년 졸업하였다. 이듬해 함흥으로 돌아온 한하운은 함경남도 청축산과에 취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센병 증상이 심해지면서 사직을 하고 집에 칩거하며 문학공부에 몰두했다.

광복이 되면서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해 군정을 실시하며 토지 몰수를 단행했다. 세습 지주였던 한하운의 집안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하운은 호구지책으로 ‘건국서사’라는 상호의 책방을 내고 아우와 함께 장사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아우가 반국가 음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함흥에서의 삶은 사실상 끝을 맺었다. 함경북도 보안부에 끌려간 한하운은 모진 고문을 받고 한센병 증상이 악화된 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가택 구금 상태였지만 치료약을 얻기 위해 한탄강을 건너 월남을 단행,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지를 돌며 약을 구했다. 그리고 다시 월북, 체포되어 재투옥되었다. 이감도중 원산 감옥을 파옥하고 탈출한 한하운은 1947년 여름, 1개월여에 걸친 남행 끝에 비로소 서울에 정착했다. 그는 서울에서 문전걸식을 하며 지냈다. 시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1949년 4월 잡지 ‘신천지’ 4월호에 ‘전라도 길’ 등 10여 편의 시를 투고하며 본격적인 시작(詩作)에 들어섰다. 같은 해 5월 정음사에서 출판한 ‘한하운시초(韓何雲詩抄)’는 그의 첫 시집이다. 시인으로 등단하자 한센병 환자 수용소 대표들이 찾아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한센인들만의 집단부락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정부와 교섭하여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환자들을 인천 부평공동묘지 골짜기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하운은 1949년 12월 30일 밤, 70여 명의 환자들을 이끌고 부평에 도착해 요양소의 이름을 성혜원(成蹊院)으로 이름 붙였다. 요양소 식구들은 6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자치회를 결성해 한하운이 선거에 의해 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됐다. 6·25전쟁 중인 1952년에는 신명보육원을 창설해 원장에 취임했다.

그 무렵 부산의 한 주간신문이 ‘한하운시초’를 문제 삼아 한하운을 불온한 사상을 가진 ‘유령 시인’으로 몰아 간 이른바 ‘문화 빨치산 사건’이 터졌다. 이때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 발표한 시가 바로 ‘보리피리’다. 한차례 사상검증을 거친 한하운은 1954년 6월 대한한센충연맹을 결성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1973년에는 한국가톨릭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 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의 자립과 치료에 노력해 갔다. 두 번째 시집인 ‘보리피리’(1955)를 발간하였고 그 외 ‘정본 한하운시집’(1964), 산문집인 ‘나의 슬픈 반생기’(1958), ‘황토길’(1960) 등을 발표하였다. 한하운은 1975년 2월 28일 인천시 북구 십정동 산 39번지 자택에서 간경화로 사망했다. 유해는 경기도 김포 장릉 공원묘지에 묻혔다.

박두성(朴斗星, 1888~1963)

훈맹정음 창안, 시각장애인들의 영원한 페스티벌로



송암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시했다. 평생을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다.

그는 인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8에서 태어났다. 교동 박씨 집안의 두터운 믿음 속에 서울로 유학 간 송암은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어의동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1913년 현재의 국립 서울맹(盲)학교 전신인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부임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에 뛰어들었다. ‘맹인’이라 불리며 사회적 천대를 받던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도 비시각장애인과 똑같이 직접 읽고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글점자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점자는 19세기 프랑스 루이 브라이유가 종이에 점을 찍어 손가락 촉각을 이용해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문자 이외에 한글로 된 점자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식교육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게다가 당시는 일본제국주의가 한글 사용을 철저히 금지시하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그의 한글점자 연구는 몹시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1926년 11월 4일 박두성은 드디어 한글점자의 초창기 모델 개발을 마치고 한글점자 개발을 선포했다. 세종대왕이 반포한 훈민정음을 본 따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한글점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송암이 가장 먼저 한글점자로 번역한 책은 성경전서였다. 1935년 제생원 교사를 정년 퇴임한 그는 이듬해 인천에 설립된 영화학교 교장에 취임해 한글점자 보급과 보완에 심혈을 기울였다. 오죽했으면 집안에 점자번역기 아연판을 설치해 놓고 밤낮으로 한글점자 번역 작업에 몰두할 정도였다. 그가 평생 점역한 책만 76점에 달한다. 영면 직전까지도 한글점자 번역일을 그치지 않았던 박두성은 1963년 눈을 감고 남동구 수산동 남동구청 옆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발해: 인물로 보는 인천사)



서울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재직 중이던 송암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인체해부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다.



문화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우리는 아시아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념 특별공연

역경을 딛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기록과 도전을 앞둔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APG)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시아 42개국, 6천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장애,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이번 대회에는 경기의 감동과 재미를 넘어 흥겨움이 함께하는 축제의 물결도 가득하다. 경기장을 찾은 관객들과 선수들이 함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모았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분/날짜	10.17(금)	10.18(토)	10.19(일)	10.21(화)	10.22(수)	10.23(목)	10.24(금)
성화안치식 및 전야제	성화 안치식 및 전야제 17:00~19:40	-	-	-	-	-	-
대공연장	-	개회식	APG성공개최 '사랑의음악회' 17:00~19:00	태권도+창작무용 '탈(TAL)' 15:00~16:30 19:00~20:30	태권도 퍼포먼스 '점프(Jump)' 15:00~16:20 19:00~20:20	콘서트 '한빛예술단' 19:00~20:30	폐회식
소 공연장	-	샌드아트 14:00~15:30	Y-Kick공연 14:00~15:30	-	장애인밴드 음악콘서트 15:00~16:30	매직버블쇼 15:00~16:30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17:00~18:30
야외 무대	-	인천국악 관현악단 14:00~15:00 경기12집가 16:00~17:00 전통예술공연 '타투' 18:00~19:00	범패와 작법무 14:00~15:00 더류현악앙상블 16:00 ~ 17:00 한울소리 18:00~19:00	또랑 광대김명자 14:00~15:00 소리코리아명창 박윤정 15:00~16:00	춤추는해금 꿈꾸는해금 14:00~15:00 연희컴퍼니 유희 15:00~16:00	서도소리 배뱅이굿 14:00~15:00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15:00~16:00	가야금앙상블 '담은' 14:00~15:00 대구무형문화재 이명희판소리 15:00~16:00
야외 광장	-	체험행사 장애인스포츠 / 한국전통문화					
대 전시실	'희망, 빛을 그리다' 한·중·일 아태 장애인 미술가 합동전						
중 전시실	인천역사문화 사진전						
소 전시실	향토작가 전통민화전						



★야외에서 즐기는 즐거움

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는 해금, 판소리, 가야금 등 지역예술단체의 우리나라 전통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야외광장에서는 한국전통 체험과, 아시아문화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등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선수촌에도 풍성한 공연이~~

아시아인의 화합과 선수들의 사기충전을 위해 대회기간 선수촌에서도 풍성한 축제는 계속된다. '날아오르는 아시아, 아름다운 몸짓'이라는 콘셉트로 재미와 감동, 다양성과 소통을 담은 다문화국제페스티벌과 창작무용공연,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조각,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미술 분야를 아우르는 작품 전시 및 전통차 다도, 아시아지역의 수공예문화 등 체험행사가 풍성하다.



APG성공개회 '사랑의 음악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사랑의 음악회'가 공연의 첫 문을 연다. 비록 발달, 지체, 시각 등의 장애를 가졌지만, 누구보다도 멋진 연주를 들려주는 단원들의 아름다운 선율은 감동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충분하다.

- 일시 : 10월 19일(일) 오후 5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무료

태권도 뮤지컬 'TAL'

전통무술인 태권도와 아름다운 한국 무용, 비보잉과 타악연주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태권도 뮤지컬 'TAL'이 관객을 기다린다. 지난 광주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공연되기도 했으며, 2012년 유네스코 초청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받은바 있다.

- 일시 : 10월 21일(화) 오후 3시, 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무료

년버벌 퍼포먼스 'JUMP'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 뮤지컬 'JUMP'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외국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퍼포먼스다.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과 대한민국 대표문화 브랜드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 일시 : 10월 22일(수) 오후 3시, 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무료



콘서트 '한빛 예술단'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은 현악기, 목관악기, 피아노로 구성된 전통 클래식 연주단체로 고전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다. 특히, 시각장애인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의 화려한 기교와 순수함이 묻어나는 연주는 장애를 극복한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 일시 : 10월 23일(목) 오후 7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무료

샌드아트

격려, 아픔 눈물 속에서도 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은 모래로 표현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삼아 하나되는 아시아와 성공적인 인천APG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일시 : 10월 18일(토) 오후 2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무료



장애인밴드 음악콘서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유명 장애예술인의 미니콘서트가 열린다. 음악을 통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흥겨움이 무대 가득 채워진다.

- 일시 : 10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무료

매직버블쇼

버블과 마술이 합쳐진 퓨전버블매직 공연이 아름다운 비누방울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신비하고 기이한 비누방울과 초대형 비누방울은 한시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 일시 : 10월 23일(목) 오후 3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무료



Culture Info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2014. OCTOBER

1234

567891011

12131415161718

19202122232425

262728293031

8 인천광역시 근로자가요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30분 / 무료

☎437-8501

9 568돌 한글날 경축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440-2215

제5회 뮤지플라이 '플룻양상블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010-6204-6431

판타지 히어로 액션 뮤지컬 '위자드 머털'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 2만 5천원

☎500-2000

10 제2회 시민합창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420-2784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챔버홀릭 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1588-2341

11 제7회 브릴란테 피아노 듀오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무료

☎010-6309-5587

황.금.토.끼 인천시립극단 <굿모닝 춘향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420-2742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3시, 7시

1만원, 학생 무료

☎760-3457

판타지 히어로 액션 뮤지컬 '위자드 머털'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 2만 5천원

☎500-2000

12 사랑과 감동이 있는 가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2만원

☎435-1281

15 제50주년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440-2503

커피콘서트X

프렐류드와 전영랑의 조우 Fly in - 날아든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1588-2341

16 인천남성합창단 제47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277-1434

리디안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010-2245-3514

브런치 콘서트 <진선 트리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 1만원

☎580-1163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40회 정기연주회 <Korean Maestro III>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1588-2341

연수문화사랑축제

연수구청 앞 상징광장

오후 2시

☎821-6229

2014 연수 프린지 페스티벌, 인음챔버오케스트라

연수구청 앞 상징광장

오후 4시

☎821-6229

연극 '고추장 떡볶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2시, 5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하다-Cross Cut'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후 3시 / 3만원

☎500-2000

23 인천시립교향악단 초청 '개관 10주년 기념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7시

6천원, 학생 무료

☎760-3457

오페라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 1만원

☎500-2000

25 위드미사8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070-7814-7330

제2회 색소폰양상을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3만원

☎811-1148

26 2014'푸른 희망'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VIP석 5만원, 일반 3만5천원

☎02)365-4673

현악양상을 담은 '新 인천팔경'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5시 / 무료

☎010-8316-7526

28 제18회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초대

☎511-3141

29 문화가 있는 날 '공연장 2시 데이트'

차이코프스키 3대 발레 갈라 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오후 2시

☎580-1155

동락, 열린무대

남동소래아트홀 스튜디오 제비

오후 8시 / 무료

☎453-5710

30 인천시립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

☎420-2784

31 스테이지149 - 연극 <투명인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원

☎1588-2341

휴먼코메디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오전 10시, 오후 2시

1만 5천원, 학생 1만원

☎453-5710

이탈의 展

~10월 11일

한중문화관 초대 '中區에서 中心으로' 전

한중문화관 1층 전시실

10월 3일~10월 9일

인천시 서예가협회 회원전 및 중국교류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이정근 도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7일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지적장애인 미술치료 작품 전시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 8일~10월 19일

자연은 다음세대의 생명 - 환경미협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 10일~10월 16일

그레 가끔씩..올려보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제3회 이은하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이철명 수채화 신작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TRACE 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15일~10월 26일

폴란드 국제 교류전 '지역, 미술을 밝히다 展'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10월 17일~10월 23일

제17회 한국문인화협회 인천지회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0월 24일~10월 30일

제50회 전국공모 인천미술대전 및 초대작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0월 22일~11월 2일

글밥 그림찬-노림씨의 이야기 그림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 11일

한중문화관 초대 '中區에서 中心으로' 전

다양한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이 한눈에!

<인천아트플랫폼 2014 플랫폼 페스티벌(Paltform festival)>은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페스티벌(Paltform festival)은 인천아트플랫폼 전현(前現) 레지던시 작가를 중심으로 전시, 공연, 교육 분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종합 축제이다. 인천시 구 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인천아트플랫폼 실 내외 공간을 활용하여 독특한 공간성이 어우러진 다양한 예술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다.

• 전시 : 10월 17일(금)~11월 7일(목)

• 공연 및 부대행사 : 10월 17일(금)~19일(일)

•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 티켓 : 무료

• 문의 : 760-1000

제즈와 민요의 절묘한 조화

10월 커피콘서트는 국악·재즈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Fly in 날아든다'로 진행된다. 남성 4인조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경기소리꾼 전영랑이 만나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유화시절 "죽흥성을 기반으로 둔 재즈와 우리 소리가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한 프렐류드가 전영랑을 만나 약 3년의 시간을 들여 이번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시원하게 뻗는 우리 소리와 감성적인 재즈 연주의 어우러짐 속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 일시 : 10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 전석 1만5천원

• 문의 : 1588-2341

인천과 대한민국을 넘는 'One Asia'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찬 아시아경기대회의 분위기에 맞추어 인천시립합창단이 '아시아'를 주제로 공연한다. 'One Asia',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등 약 13곡으로 구성된 우효원의 '아시아 판타지'는 2013년 인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여 창작된 '오! 인천'보다 더욱 감동적이며, 인천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모두가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 입장 : 10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전석 1만원

• 문의 : 엔티켓 1588-2341

금난새가 이끄는 챔버오케스트라의 매력!

금난새 예술감독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즐기는 실내악 연주회 '챔버 홀릭'이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1874년에 탄생해 각 나라의 근대음악을 대표하는 동갑내기 작곡가 두 명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관악단의 중요한 레퍼토리가 되고 있는 곡들을 남긴 구스타프 홀스트의 '군악대를 위한 모음곡 2번 F장조'와 체코 작곡가인 요세프 수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6'을 연주한다.

• 일시 : 10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 문의 : 엔티켓 1588-2341

46

GOOD MORNING INCHEON

47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 타고

## 흥겨움 가득한 ‘인천은 축제중’

10월, 인천은 온통 축제의 도시가 된다.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답게 바다와 관련된 축제는 물론, 음악과 화려함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제들이 앞다투어 풍성한 가을 축제를 펼친다. 덕분에 깊어 가는 가을, 축제와 함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

글 김윤경 인터넷신문 I-View편집위원

### 밤하늘을 수놓은 황홀경, 인천음악불꽃축제

이젠 더 이상 화려한 대형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서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달 11일 송도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해진다. 이날 송도국제도시 인천아트센터 호수 인근에서는 ‘제2회 인천 음악불꽃축제’가 열린다. 눈으로는 화려한 불꽃을 보고, 귀로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인천 불꽃축제는 타상연화, 장치연화, 수상연화 등 다양한 불꽃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 불꽃쇼와 레이저, 서치조명, 영상 등과 불꽃이 조화를 이루는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스토리 전개에 따른 기승전결의 구성으로 진행된다. 또 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는 K-POP Remix DJ Show가 펼쳐진다.

**일시** 10월 11일(토) **장소** 인천아트센터 호수 인근(송도국제도시내) **문의** 인천도시공사 ☎260-5343 **Tip** 지하철을 이용하면 인천지하철 센트럴파크역(2번 출구)나 국제업무지구역(2번 출구)에서 하차하면 된다. 차량 이용의 경우 인천대학교, 센트럴파크, 송도컨벤시아, 송도 커널워크 등 행사장 주변의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인천도호부대제

이달 13일 도호부청사에서는 국민안과 인천시의 번영, 그리고 인천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호부대제가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열린다. 역대 인천도호부사 351인에 대한 대제를 전통에 맞게 재현한 인천도호부 대제는 지방대제로는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봉행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도호부대제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판굿과 대취타 공연을 시작으로 대제가 끝난 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복례(음식나눔행사)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시민들에게 국수와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전통의상체험, 왕골체험,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갖는다.

**일시** 10월13일(월) **장소** 인천도호부청사  
**문의** 인천예총 ☎873-5174





제철 맛은 수산물이 가득! **소래포구축제**

소래포구축제는 '세상을 밝히는 소래의 빛'이라는 주제로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남동구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인 김금화 선생의 서해안풍어제로 시작한다. 부대행사로는 소래꽃게 낚시, 전어 잡기, 소래갯벌체험, 갈대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소래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이용한 '소래 씨푸드(Sea Food) 요리대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소래의 가장 큰 자원은 역시 신선한 수산물을 즉석에서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것. 축제 기간동안 최상급의 수산물이 상수도 못할 파격적인 가격에 깜짝 경매로 판매되고, 할인행사로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

**일시** 10월 12일(화)~15일(금) **장소** 소래포구  
**문의** 남동구 문화체육과 ☎453-2142

바다내음 물씬~ 어깨춤 덩실, **연안어시장축제**

비릿한 바다내음과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연안부두. 훌쩍 바다가 보고 싶을 때 무작정 발길을 돌리게 되는 그 곳에서 사람들과 한껏 어우러질 수 있는 연안어시장 축제가 열린다. 이달 11일과 12일 이틀간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밸리댄스, 마술공연, 색소폰 경연 등이 펼쳐진다. 특히, 바지락 옮기기, 얼음위에 오래 서 있기, 연안부두 ○×퀴즈 등 연안어시장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시민 참여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일시** 10월 11일(토)~12일(일) **장소**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문의** 중구 문화예술과 ☎760-6443, 인천종합어시장 ☎888-4243



임금님 입맛도 사로잡았던 젓갈, **강화새우젓 축제**

천혜의 자연과 바다를 간직한 강화도 특산물 중 하나인 새우젓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일부터 12일까지 내가면 외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기간에는 새우젓가요제, 새우젓경매, 갯벌장어잡기, 망둥어 낚시, 청소년 댄스, 태권도 공연, 젓새우·생선회 시식회, 인기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체험행사와 상설행사로 캐리커처&페이스페인팅, 사진전시회, 가훈씨주기, 먹거리장터, 농경문화 체험행사를 마련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강화 농·축·수산물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설치된다. 임진강과 예성강, 한강이 합류하는 강화도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강화도 새우젓은 내륙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를 섭취, 감칠맛을 자랑한다. 껍질이 얇고 높은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어 임금님에게 진상될 정도로 그 품질이 유명하다.

**일시** 10월 10일(금)~12일(일) **장소** 강화 외포리 젓갈 어시장  
**문의** 새우젓축제추진위원회 ☎932-9337



이젠 가볍게 동네에서 즐긴다

**IFEZ 공원콘서트**

축제가 꼭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다. 흥겨운 마음으로 즐겁게 즐기면 그것 또한 멋진 축제가 된다. 이달 중 송도, 영종, 청라에 있는 공원에서는 클래식과, 재즈, 밴드공연 등 다양한 문화의 향연이 넘쳐난다. 공원 산책 중에 불쑥 만나게 되는 보석 같은 공연이 어쩌면 깊어가는 가을의 여유로움을 더해줄지도 모른다.

**일시** 10월 3일~26일 **장소** 송도, 영종, 청라 소재 공원 **문의** IFEZ ☎453-7093





## 색<sup>色</sup> 홀리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알리는 불꽃이 어두운 하늘을 밝게 물들인다. 그 빛은 하늘에 닿고 다시 땅에 내려앉는다. 형형색색의 불꽃은 서서히 몸을 낮추며 산과 들로 흩어진다. 세월을 허리에 두른 고목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모르는 어린 가지도 '가을'이라는 이름으로 단풍 옷을 곱게 입는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한 국가 중에는 '가을'이 없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들, 제대로 왔다. 인천 곳곳에 깊이 내려앉은 또 다른 '불꽃'을 원 없이 보게 될 것이다. 그 황홀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글·사진 김민영 자유기고가

秋





## 강화 북문



### 가을 빛에 눈멀어 길을 잃다

오롯이 혼자이고 싶다. 누군가와 동행하되 고요하고 싶다. 눈을 휘감는 고즈넉함에 취해 일상을 놓아버리는 강화 북문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이곳의 단풍은 이미 절경으로 입소문이 났다. 화려하되 고요한 가을. 그 절경은 '진송루'에서부터 시작이다. 아담한 성문 양 옆에는 단풍나무가 수문장처럼 버티고 서있다. 길을 새로 잡아드는 고개에 세워진 누각과 성벽은 인간 세상과의 선을 또렷이 그어놓은 듯 적막하다. 진송루는 색의 경계다. 가지가 휘어지도록 붉게 물든 단풍을 뒤로하고 그 문을 지나면 노오란 세상이 펼쳐진다. 강화나들길 제1코스이기도 한 이곳은 강화 역사만큼 나이드 거목들이 줄지어 오솔길을 만들었다. 오솔길의 폭은 좁다. 깊은 가을이면 이 길목에 황금빛 웅단이 깔린다. 노오란 불꽃이 가을바람에 나부끼며 내려앉는다. 그 길 위에 선 이의 등이 작아짐에도 슬프지 않은 것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일 게다.



## 월미산

### 바다와 색깔을 합치다

50여년 간 닫혀 있던 월미산이 2001년에 봉인 해제 됐다. 반세기 동안 숲은 스스로 크며 우람한 품을 만들었다. 군사지역으로 발이 묶였던 월미산은 그만큼 서해바다를 깊이 바라 볼 수 있는 원시림 지역이다. 시민들에게 활짝 열리면서 묵묵히 잠자며 뿌리를 단단히 내린 산이 기지개를 폈다. 사시사철이 아름다운 월미산은 누구나 오르고 싶은 산이 됐다. 전국에서 산책하기 좋은 산 '탐10'으로 선정될 만큼 그 용모는 수려하고 빼어나다. 무엇보다 입은 옷 그대로 구두를 신고 오를 수 있어 더 값지다. 순환산책로에는 우직하게 산을 지탱하고 있는 거목과 다양하고 희귀한 야생화로 가득하다. 서해를 물들인 석양이 깊어지면 월미산의 단풍은 더 깊은 색을 낸다. 달팽이가 돌듯 동굴동굴 곡선을 따라 올라도, 나무계단을 따라 직선으로 올라도 월미산을 덮은 화려한 색은 고스란히 그 산에 담겨있다. 월미산 정상에 서면 바다도시 인천의 현재가 고스란히 펼쳐진다. 항구와 도시, 섬과 바다 그리고 시간. 월미산을 지키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만큼 가을색은 다채롭다.

## 소래습지 생태공원

### 흑백 추색이 더 화려하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의 가을은 흑백이다. 그곳은 절제와 고요. 예전부터 고요했던 것 같은 착각 때문인가, 염부가 굵은 땀을 흐린 한여름이 이곳에 있었다는 기억이 희미하다. 1934년부터 소금을 생산했고 1996년 폐염전이 되었다. 소금을 영글게 한 자리는 이제 바닥을 보인다. 시간이 멈춘 듯 걸음은 느리다. 갯길에 핀 코스모스를 따라 줄지어 선 소금창고. 한여름의 땀을 삼키고 입술을 굳게 닫은 그곳이 비밀스럽다. 그 옆으로 다 쓰러져 가는 낡은 소금창고 몇 개가 안쓰럽게 서 있다. 기둥은 알몸을 보이듯 엉성하게 서로 부둥켜안고 세월 탓을 한다. 낡았지만 시간을 품고 있어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이곳은 출사죽들의 단골 장소다. 소금배가 들어올 만큼 갯골도 깊었다. 지금은 갯골도 시간만큼 단단해졌다. 자전거로 달리는 속도만큼 가을은 이곳에서 재빠르게 깊어진다. 갯골을 따라 휘도는 바람도 흑백의 가을을 쓸쓸히 달린다.







## 송도센터럴 파크

### 달빛 속 은빛 억새가 춤추다

스카이라인 송도국제도시 중심에는 녹색 양탄자가 길게 깔려 있다. 센트럴파크에는 9경이 있다. 인공 수로를 달리는 수상택시, 서해로 넘어가는 진홍빛 석양, 세계 이웃들의 얼굴을 형상화한 지구촌 얼굴, 작은 초원의 꽃사슴, 아웃도어를 잠시 느낄 수 있는 바비큐장, 공원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누각 송하정의 달빛, 숨은 그림 찾듯 곳곳에 자리한 볼거리들이 센트럴파크의 사시사철을 멋스럽게 한다. 이 공원에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메신저는 황금빛 억새다. 달빛도 차오르는 가을이면 더욱 은은한 은빛 물결이 일렁인다. 센트럴파크에 바람소리가 깊어지면 억새도 깊어진다. 연인들의 속삭임도 삼켜 버리는 억새밭은 데이트 장소로 인기다.

秋

### 팔레트처럼 총천연색으로 물들다

가을이 오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인천대공원으로 향한다. 그곳에 오묘한 색이 피어오르기 때문이다.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완연하게 보여주는 인천대공원은 단풍도 한 가지 색조가 아니다. 갈색으로 물드는 참나무류와 붉은색 단풍나무, 그리고 진초록의 잣나무들이 어우러져 마치 물감을 짜놓은 팔레트 같다. 흥분된 마음으로 관모산 정상에 올라서면 발아래는 단풍으로 물들어 아찔하다. 가는 길을 잡는 색의 유혹으로 자꾸 시간이 늘어진다.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빠져 나가기 쉽지 않은 마법의 공간이다. 긴 호흡으로 공원을 거닐며 만나는 호수에서 잠시 여유를 찾는다. 깊어지는 가을을 따라 수목원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야생화와 거목에 숨통이 트인다. '시크릿 가든'인 이곳은 인공적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환경에 찌든 도시민에게 새로운 힘과 재충전의 활력을 선사한다. 질 좋은 순도 100%의 산소가 폐부 깊숙이 들어온다.



## 인천 대공원



## 계양산

### 가을 끝자락 잡으며 산에 오르다

인천에는 설악산, 지리산 같은 웅장한 산이 없다. 크고 높은 산이 없다고 깊은 가을이 없는 게 아니다. 인천의 북쪽에 자리 잡은 계양산은 부평벌과 김포평야 사이에 우뚝 솟은 산이다. 벌판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실제 높이 보다 높아 보이고 그 만큼 추색(秋色)도 깊다.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시민에게는 깊어가는 가을도, 먼 산에서 날아오는 단풍 소식도 그저 딴 나라 이야기일 뿐. 그럴 때 해답은 '가벼운 트래킹'이다. 반나절의 시간만 내도 가을 풍광에 푹 젖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계양산이다.

등산로를 따라 곳곳에 가을 '눈 맛'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산마루에만 가을이 있는 게 아니다. 한동안 개발 문제로 관심을 끌었던 산 북쪽 사면에는 분위기 좋은 숲길이 곳곳에 숨어 있다. 특히 현대제철 주말농장 앞길부터 목상동 토속음식마을까지의 기다란 오솔길은 차 한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다 굽은 길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운치를 더 해준다. 곳곳에 소나무 숲이 있어 돛자리 펴 놓고 술향을 맡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적십자 병원길



### 이름 모를 소녀를 만나다

산에 오르지 않고 몇 걸음 만에 닿을 수 있는 도심의 오솔길에서도 만추를 느낄 수 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대면 바로 '그림'이 되는 연수구 적십자 병원과 대우1차 아파트 사이길은 원래 벚꽃길로 유명하다. 이 벚꽃 가로수들이 가을에는 도심에선 보기 드물게 예쁜 풍경을 연출한다. 길은 배수지공원과 연결돼 산길 산책도 가능하고 쪽문을 통해 들어가면 병원 정원의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병원은 원래 결핵요양소로서 1960,70년대 영화촬영 단골 장소로 꼽힐 만큼 목가적 풍광이 좋았던 곳이다. '이름 모를 소녀' 등 우수에 찬 노래를 불렀던 김정호도 여기서 잠시 요양을 하며 이 풍광을 바라보며 주옥같은 히트곡들을 만들었다.



#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Incheon National Para Games

## 2014.11.04-11.08

### 인천광역시 일원

주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